

“출산으로 2년간 공백 경단녀, 누구보다 공감”

티빙 드라마 '잔혹한 인턴' 라미란

“배우라는 직업은 출연하는 작품이 없으면 백수가 되는 거니까 항상 경력에 단절이 있었죠. 출산했을 때는 2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혹한 인턴'의 고해라에게 더욱 공감했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경력에 단절되는 문제는 이른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라는 표현을 탄생시켰다. 배우 라미란은 지난달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두 회 차씩 공개되고 있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에서 경단녀 고해라 역할을 맡았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라미란은 출산 후 2년의 경력 단절 기간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정말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가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아기만 보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라미란은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다”며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 일이라고 생각했던 연기를 더는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힘들었던 그 시기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켰는지 묻자 라미란은 “안정이란 퇴조”라고 딱 잘라 대답했다. 그는 “일을 하니까 그제야 안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가 다시 연기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전철역 급차'였다. 그의 프로필을 보고 영화사에서 ‘오늘 저녁에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연락해왔다고 한다.

“아이 젖을 먹이고 있는데 오디션을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하고 대답하고 그날 바로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이를 뒤에 (오디션에) 통과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설레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묻어난 덕분에 라미란은 '잔혹한 인턴'에서 열연을 펼쳤다.

고해라는 출산과 육아에도 불구하고 일에 매진하며 상품기획자(MD)로 승승장구하지만, 아이를 맡아 키워주던 친정어머니가 쓰러지면서 결국 사표를 내고 7년 동안 일터를 떠난다.

40대 경단녀라는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 떨어지며 낙담하던 고해라는 과거의 입사

인턴으로 회사 복귀한 경단녀 내면 갈등 겪는 직장생활 그려 '공감 된다' 댓글 슬프고 씩씩 파이팅 있는 여자 주인공 시청자들에 위로 될 것 같아

동기이자 마케터우스라는 회사 실장인 최지원(엄지원)의 권유로 인턴으로 입사한다. 최지원은 자신의 부하 직원 중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쓰려는 직원들을 퇴사하도록 유도해준면 과장 직급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과거 고해라는 사표를 내기 전 다른 '워킹맘'들이 육아 때문에 일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면 “짜잡아서 다른 엄마들도 욱하게 한다”며 싸늘한 태도를 보였지만, 스스로 경력 단절을 겪은 뒤에는 동료들의 고충에 공감하는 인물로 변화한다. 고해라는 최지원의 제안에 흔들리면서도 동료들의 퇴사를 막으려 고심한다.

라미란은 이처럼 극심한 고해라의 온도 차이를 선명하게 표현했다. 거의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듯한 연기의 비결을 묻자, 라미란은 “사실 고해라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라미란은 “7년 전 고해라는 승진을 위해 '입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각서를 쓸 정도로 간절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과 달리 육아 핑계를 대는 동료들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그랬던 고해라가 같은 입장이 돼서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겉테기'를 조금 벗은 것 같다”며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라미란은 “고해라의 이야기에 '너무 공감된다'는 댓글을 볼 때면 슬프고 씩씩하다”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고해라가 '파이팅' 있는 인물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이라도 (경력이 단절된 이들에게)



배우 라미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마 속 고해라처럼 라미란도 긴 공백기를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배우가 됐다. 영화 '정직한 후보' (2020)와 드라마 '나쁜엄마' (2023) 등 주연을 맡은 작품이 잇달아 흥행했다. '정직한 후보'로 제41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도 받았다.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후 배우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했지만, 정작 라미란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룡영화상 외에는 (주연상에) 노미네이트조차 되지 않았다”며 웃어 보였다. 이어 “상을 받는 건 그냥 이벤트였다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일이 안 들어올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잠깐 더 시끄러워질 뿐이죠. 제 일은 달라지지 않아요.”

/연합뉴스

BTS 정국 '세븐' 빌보드 7주 연속 1위

글로벌 200·글로벌 차트...전 세계 9700만 스트리밍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사진)의 글로벌 히트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글로벌' (미국 제외)에서 7주 연속 1위에 올랐다.

6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세븐'은 지난달 25~31일 전 세계적으로 9700만 스트리밍과 1만2000 판매량을 기록해 전주에 이어 또다시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는 “이 노래는 2023년 '글로벌 200'에서 1위로 데뷔해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첫 번째 노래”라며 “1월 1위로 진입해 6주 연속 정상을 지킨 마이리 사이어스의 '플라워스'(Flowers)를 제쳤다”고 소개했다.

'세븐'은 이 밖에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는 전주보다 네 계단 오른 28위로 7주 연속 진입했다.

'핫 100'에서는 이 밖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Cupid)가 48위로 24주 연속 진입했고, 뉴진스의 '슈퍼 사이'(Super Shy)는 95위로 8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뉴



진스의 두 번째 미니앨범 '갯 업'이 24위,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가 70위, NCT 드림 3집 'ISTJ'가 73위, 스트레이 키즈 3집 '★★★★' (파이브스타)가 121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리얼한 연애 이야기 '나는 솔로' 인기

기싸움·오해 등 여과 없이 방송...시청률 3.7% 자체 최고

인간 다큐멘터리 같은 연애 리얼리티 예능 '나는 솔로'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뜨거운 화제를 몰고 있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 방송된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시청률은 ENA에서 2.2%, SBS플러스에서 3.7%를 각각 기록했다.

'나는 솔로'는 결혼을 목적으로 모인 남녀를 관찰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지만, 어쩔지 설레는 장면보다는 분통 터지는 장면이 더 많다.

연애가 간절한 출연진은 본인도 모르는 새 미숙하고 못난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제작진은 이를 굳이 포장하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출연진이 벌이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욕하면서 보는 재미'는 더하다. '빌런'들이 등장했던 4기, 10기에 이어 이번 16기도 그렇다.

'돌싱(돌아온 싱글) 특집'으로 구성된 이번 기수에는 개성이 뚜렷한 출연진이 모였다.

“부엌에 남자가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한 남성 출연자부터, 서로를 견제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는 여성 출연진, 상대방의 말을 성급하게 오해해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또 다른 여성 출연자까지, 상식 선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아 흥미를 자극하는 말과 행동이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대중의 이목을 끄는 건 '빌런'들이지 몰라도,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건 제작진의



방송 한장면.

힘이다.

2021년 7월 첫 방송을 시작한 '나는 솔로'가 2년 넘도록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양한 인간 군상을 포착해내며 대중의 공감을 끌어낸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는 솔로'는 여러 상황에서 나오는 출연진의 모습을 여과 없이 담아내며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한 재미를 전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 출연진의 특징과 심리를 분석하는 글들이 인기를 끌고,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 영상 클립에는 '출연진을 보면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인생을 배운다' 등의 댓글이 달린다.

'나는 솔로'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 방송된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참살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청담빌딩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